

SESSION 1

From Abraham to Jesus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Session summary

This session traces the lineage of Jesus back to Abraham. Jesus' identity is rooted in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s that God would bless all the nations through Abraham, establish an eternal kingdom through the line of David, and one day bring them back from their long exile to the land that was promised. Jesus' genealogy is also ours, because we trace our heritage back to Abraham, our forefather in the faith. In this historical line, we discover our truest identity in Christ, the One through whom God fulfilled all His promises.

세션 요약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의 혈통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며, 언젠가 그들을 오랜 유배 생활에서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우리의 혈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우리의 유산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계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장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Scripture

Matthew 1:1-17 마태복음 1:1-17

The Point

Jesus i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s to His people.

요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INTRO/STARTER 5-10 MINUTES

Option 1

Have you ever struggled with the question, "Who am I?" The question of identity is one of those basic questions that we need to ask again and again to help us grow and mature as the world changes around us and as the world inside us changes. This is the struggle that fuels websites like *ancestry.com* and television shows that reacquaint celebrities with their "roots."

What are some ways that people in our society today show they long to know "who they are" and "where they come from"? Why do these questions matter for human beings?

As we close the last page of the Old Testament and open the first page of the New Testament, we come to the Gospel of Matthew. This book was written to a community of Jews who believed in Jesus of Nazareth while living in a world undergoing radical, sometimes violent, changes. Many of these Jews wrestled with questions of identity and distinction. In a time of turbulence and unrest, followers of Jesus faced opposition from their fellow Jews. As a result, for a first-century Jewish follower of Jesu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became "Who am I?" Matthew wrote his Gospel, in part, to help them discover who they were in Jesus. The genealogy that opens his Gospel reveals the disciples' identity as an ancient identity, extending all the way back to Abraham.

These persecuted followers of Jesus were on the verge of the powerful realization that it was no longer the temple or the synagogue that defined them, and no longer their dedication to ritual obedience. They would find their new identity solely in the person of Jesus. Matthew told them who they were by revealing who Jesus is.

옵션 1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세상이 변하고 우리 내면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ancestry.com*과 같은 웹사이트와 유명인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다시 알려주는 TV 프로그램을 부추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인간에게 왜 중요한가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신약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이 책은 급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 다수는 정체성과 구별에 대한 질문으로 고심했습니다.

혼란과 불안의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동료 유대인들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1세기 유대인 예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마태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돕기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의 복음서의 서두에 나오는 족보는 제자들의 정체성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정체성임을 보여줍니다.

이 박해받던 예수 제자들은 더 이상 성전이나 회당이 자신들을 정의하지 않고, 의식적 순종에 대한 헌신도 더 이상 자신들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깨달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힘으로써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Option 2

Ask students what they think of when they hear the word identity. As they respond, jot down key words on a white board or poster board at the front of the room. Allow a few minutes of discussion, and then ask the following:

Where do you think most people today find their identity? How do you see Christians being tempted to do the same?

Like many of the Jews in Jesus' time struggled to find their identity, so do many of us. We try to find our identity in the schools and churches we attend, our groups of friends, the sports or clubs we're involved in, or even by our last names. As Jesus' disciples realized, a believer's identity is powerfully wrapped up in Christ.

What are some ways you can live out your identity in Christ, even when it's not popular with the surrounding culture?

2번 선택지

학생들에게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는지 물어보세요. 학생들이 대답하는 동안 교실 앞쪽에 있는 화이트보드나 포스터 보드에 핵심 단어를 적어 두세요. 몇 분간 토론할 시간을 준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하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것처럼,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니는 학교와 교회, 친구 모임, 참여하는 스포츠나 동아리, 심지어 성(姓)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듯이, 믿는 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주변 문화에서 인기가 없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살아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HIS STORY 15-20 MINUTES

THE POINT

Jesus is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s to His people.

요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Characters

Jesus: the eternal Son of God;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Abraham: biblical patriarch; chosen by God to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David: youngest son of Jesse who was anointed to be king following Saul. David is recognized for a number of things, in terms of both his character—he followed God—and his accomplishments—he defeated Goliath, etc.

아브라함: 성경의 족장. 하나님께 택함받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됨

다윗: 이새의 막내아들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부음받음. 다윗은 하나님을 따랐다는 그의 성품과 골리앗을 물리친 업적 등 여러 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Plot

Four hundred years passed between the close of the Old Testament and Jesus' birth. As with all of the years since the time of Adam and Eve, God's people anxiously awaited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of the coming One who would crush the head of the serpent. That time had finally arrived. In this ongoing drama of redemption, Jesus, the Son of God, entered as the hero to God's amazing story of salvation.

줄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의 모든 세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께서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때가 왔습니다. 이 계속되는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의 영웅으로 등장하셨습니다.

JESUS DESCENDED FROM THE LINE OF ABRAHAM

To answer any identity question, it is always best to go back to the beginning, which is precisely what Matthew did. A more literal translation of his opening phrase might be "The book of the origins of Jesus..." It is an echo of Genesis 2:4 which also describes itself as a book of records. Jesus is the fulfillment of a promise first spoken to Abraham, that all nations would be blessed through Him. Abraham was not just some hero of the faith, Jesus would descend from his lineage.

1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2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and Isaac the father of Jacob, and Jacob the father of Judah and his brothers, 3 and Judah the father of Perez and Zerah by Tamar, and Perez the father of Hezron, and Hezron the father of Ram, 4 and Ram the father of Amminadab, and Amminadab the father of Nahshon, and Nahshon the father of Salmon, 5 and Salmon the father of Boaz by Rahab, and Boaz the father of Obed by Ruth, and Obed the father of Jesse... (Matt. 1:1-5)

Jesus' connection to the promises of God are a flesh and blood link to His genetic ancestors. This was not simply a roll call of great men; these were members of Jesus' family! These ancestors were the recipients of unique promises from God. Jesus would be the One through whom each promise would be perfectly and completely fulfilled.

Unlike Luke, who tucked his genealogy of Jesus away in chapter 3, Matthew opened his Gospel with a genealogy. He was making a point about the significance of Jesus' lineage and ident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genealogy, Matthew organized Jesus' ancestors into three groups of 14 generations each.

Through this genealogical identity of Jesus and all of His famous ancestors, Matthew made another point: Jesus is the fulfillment of God's unique promises. Not only that, but Matthew wanted his readers to understand that even as Jesus had ancestors, so He will also have descendants, citizens of His kingdom. That is the new and yet ancient identity that belonged to the first Jewish followers of Jesus and that can belong to those who follow Him today.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떤 정체성 질문에 답하려면 항상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며, 마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서두 문구를 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의 기원에 관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4절을 연상시키는데, 이 구절 역시 스스로를 기록의 책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약속, 곧 모든 민족이 그분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혈통에서 나오실 것이었습니다.

1.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1-5)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맺으신 관계는 그분의 유전적 조상들과의 혈연적인 연결 고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들의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속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3장에 숨겨둔 누가와 달리, 마태는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혈통과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족보의 시작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들을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유명한 조상들의 족보적 정체성을 통해 마태는 또 다른 요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조상들을 두셨듯이, 그분의 후손들,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두실 것임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속했던, 그리고 오늘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속할 수 있는 새롭고도 오래된 정체성입니다.

Going Further with The Story

The first generational block began with Abraham, the one who first received the promise that God would bless the nations through his “seed” (Gen. 22:18; Matt. 1:1-5; Gal. 3:16). The second block began with David, who was promised an eternal throne (2 Sam. 7:13; Jer. 23:5; Matt. 1:6-11). Finally, the third block focused not on a person but on an event—the promise of the exiles’ return from captivity (Ezek. 37:24-26; Jer. 31:31-34; Matt. 1:12-17).

이야기의 심화

첫 번째 세대 블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통해 열국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창 22:18; 마 1:1-5; 갈 3:16). 두 번째 블록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삼하 7:13; 렘 23:5; 마 1:6-11). 마지막으로 세 번째 블록은 사람이 아닌 사건, 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배민들의 약속에 초점을 맞춥니다(겔 37:24-26; 렘 31:31-34; 마 1:12-17).

JESUS DESCENDED FROM THE LINE OF DAVID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would keep the promise He made to the first Hebrew (Abraham) throughout the generations (Gen. 14:13). The second block of names introduced King David.

6 and Jesse the father of David the king. And David was the father of Solomon by the wife of Uriah, 7 and Solomon the father of Rehoboam, and Rehoboam the father of Abijah, and Abijah the father of Asaph, 8 and Asaph the father of Jehoshaphat, and Jehoshaphat the father of Joram, and Joram the father of Uzziah, 9 and Uzziah the father of Jotham, and Jotham the father of Ahaz, and Ahaz the father of Hezekiah, 10 and Hezekiah the father of Manasseh, and Manasseh the father of Amos, and Amos the father of Josiah, 11 and Josiah the father of Jechoniah and his brothers, at the time of the deportation to Babylon. (Matt. 1:6-11)

The second block began with David, who was unique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Lord. No one ever rose so high or fell so far (2 Sam. 11; Ps. 89). In the chronicles of the kings, David was the standard against whom all other kings were measure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e title “your father David” was not a phrase addressed only to Solomon, but also to many of the later kings.

The promise that David’s throne would endure forever may be the most often repeated promise in the Bible. It was a promise the Lord seemed to be especially concerned with keeping. But David failed to keep the requirement to walk faithfully, as did most of his descendants listed in Matthew’s genealogy.

What does this parade of evil kings in Jesus’ genealogy tell us about God’s faithfulness to His covenant?

After David, God’s people endured many rulers who refused to walk in His ways. Still, God was faithful to His people. Solomon built pagan temples for his wives.

- Rehoboam was cruel and forsook the law of the Lord (2 Chron. 12:1,5).
- Abijah killed half a million Israelites in the war of the divided kingdoms.
- Ahaz stole from the temple (2 Kings 16:7; 2 Chron. 28:1).
- Hezekiah, the great tunneler, was afraid to die and wept before the Lord, though he was remembered overall as a good king (2 Kings 20:3; 2 Chron. 31:20).
- Manasseh seduced his own people to do evil (2 Kings 21:9,20).
- Amon sacrificed to pagan images (2 Chron. 33:20).
- Jeconiah, the last ruler before Nebuchadnezzar destroyed Jerusalem and took the people into exile, received the curse that none of his descendants would ever sit on the throne of David (Jer. 22:28-30).

In spite of the broken promises of so many kings, God would remain faithful to His promise concerning the eternal throne of David. In the end, the promise made to David was not about him. Matthew wanted readers to know it would be Jesus, David's direct descendant, who would perfectly keep the promise to walk in the Lord's ways. He would bless all nations, according to the promise made to Abraham. He would establish an eternal Kingdom, taking His seat on David's throne. Jesus would be the focus and fulfillment of every promise, every dream, and every hope.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최초의 히브리인(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대대로 지키실 것입니다(창세기 14:13). 두 번째 이름 블록은 다윗 왕을 소개합니다.

6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고, 8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았고, 9 웃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았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고, 11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유배될 당시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6-11)

두 번째 문제는 다윗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그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큼 높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깊이 떨어진 사람은 없었습니다(삼하 11장; 시 89장). 열왕기에서 다윗은 다른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네 조상 다윗"이라는 칭호는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대 왕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약속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특별히 지키시는 데 관심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그의 후손들 대부분처럼 충실하게 행하라는 요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악한 왕들의 행진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심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니까?

다윗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길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많은 통치자들을 참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충실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내들을 위해 이교 신전을 지었습니다.

- 르호보암은 잔인했고 주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대하 12:1, 5).
- 아비야는 분열된 왕국들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 아하스는 성전에서 재물을 훔쳤습니다(왕하 16:7; 대하 28:1).
- 터널을 파는 데 큰 공을 세운 히스기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왕하 20:3; 대하 31:20).
- 므낫세는 자기 백성을 유혹하여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왕하 21:9, 20).
- 아몬은 이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대하 33:20).
-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기 전 마지막 통치자였던 여고냐는 그의 후손 중 누구도 다윗의 왕좌에 앉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렘 22:28-30).

그렇게 많은 왕들의 약속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좌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독자들에게 다윗의 직계 후손인 예수님이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지키실 것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속과 꿈과 소망의 초점이 되시고 성취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속과 꿈과 소망의 초점이 되시고 성취되실 것입니다.

JESUS IS THE MESSIAH WHO DELIVERS US FROM EXILE

Matthew concluded the last generational block (14 names) of his genealogy, not with a person like Abraham or David, but with an event. This exception is supposed to catch our attention and force us to ask why. When a biblical author does not give us what we expect, it is an invitation to pay close attention. This exceptional event was the return of God's people following the Babylonian exile.

12 And after the deportation to Babylon: Jechoniah was the father of Shealtiel, and Shealtiel the father of Zerubbabel, 13

*and Zerubbabel the father of Abiud, and Abiud the father of Eliakim, and Eliakim the father of Azor, **14** and Azor the father of Zadok, and Zadok the father of Achim, and Achim the father of Eliud, **15** and Eliud the father of Eleazar, and Eleazar the father of Matthan, and Matthan the father of Jacob, **16** and Jacob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Jesus was born, who is called Christ. **17** So all the generations from Abraham to David were fourteen generations, and from David to the deportation to Babylon fourteen generations, and from the deportation to Babylon to the Christ fourteen generations. (Matt. 1:12-17)*

In 597 B.C., as a result of king Zedekiah's refusal to heed the warnings of Jeremiah (Jer. 1:3; 52:10), Jerusalem was taken and destroyed by Nebuchadnezzar, the king of the Babylonian empire. In three successive waves, the people were exiled to Babylon. Conquering kings often removed people from their native land and watched those nations disappear as their people intermarried with the foreign population. Israel's determination to remain separate allowed the nation to survive.

In 539 B.C., the Babylonians were destroyed by the Persians, led by Cyrus. Then, Cyrus allowed the Jews to return and was even miraculously inspired by God to help rebuild the temple that the Babylonians destroyed (2 Chron 36:22; Ezra 1:1).

The Persian victory was a disaster that turned into a miraculous provision. Just when God's people were seemingly dispersed and defeated, He led them home. The people were separated from their promised land because of stubborn disbelief and refusal to trust in God's promises.

If these circumstances sound familiar, they should. They resemble the situation of Matthew's first readers. They also point to our own being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We were exiled from the garden of Eden because of our sin, and we now live outside of the place God originally intended for us. We wait for Christ's return and the full establishment of His kingdom. We trust and follow Him, believing He will lead us home.

Jesus is the perfect and trustworthy One who will lead us home, rescuing us from the exile that resulted from our stubborn disbelief and sin. As the direct descendant promised through Abraham and David, Jesus would perfectly and completely accomplish what God intended from the beginning: He would be with us (Lev. 26:12).

마태는 그의 족보의 마지막 세대(14명의 이름)를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인물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건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왜 그런지 묻게 합니다. 성경 저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제시하지 않을 때, 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초대입니다. 이 예외적인 사건은 바빌론 유수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12 바빌론으로 유배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불린다. **17**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대는 열네 대였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유배될 때까지 열네 대였고, 바빌론으로 유배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였다. (마태복음 1:12-17)

기원전 **597**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렘 1:3; 52:10),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백성들은 바빌로니아로 유배되었습니다. 정복 왕들은 종종 백성들을 본토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민족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 민족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결의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로니아는 키루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 후 키루스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영감을 받아 바빌로니아인들이 파괴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대하 36:22; 에스라 1:1).

페르시아의 승리는 재앙이었지만, 기적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겉보기에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집스러운 불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태도 때문에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럴 만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 자신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곳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의 완전한 수립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며, 그분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국으로 인도하실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불신앙과 죄로 인해 갇힌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직계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레위기 26:12).

99 Essential Doctrines: Jesus' Humanity

In addition to being fully divine, the Bible also affirms that Jesus is fully human. Not only does the Old Testament affirm that the Promised One (Messiah) would be a man (Isa. 7:14; 9:6; Mic. 5:3), but the New Testament also affirms that Jesus' earthly life bore all the marks of being a human. He experienced the circumstances common to living as a human being, such as hunger (Matt. 4:2), thirst (John 19:28), weariness (Matt. 8:24), sorrow (John 11:35), and pain (the crucifixion).

99가지 필수 교리: 예수님의 인성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심을 확증합니다. 구약은 약속된 분(메시아)이 인간일 것이라고 확증할 뿐만 아니라(사 7:14; 9:6; 미 5:3), 신약 또한 예수님의 지상 생활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특징을 지녔음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마 4:2), 목마름(요 19:28), 피곤함(마 8:24), 슬픔(요 11:35), 그리고 고통(십자가 처형)과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상황을 경험하셨습니다.

CHRIST CONNECTION

In the years to come, those of us who follow Jesus will inevitably experience separation, exclusion, and maybe even exile. This is what many of our brothers and sisters all over the world already experience. The promises made to Matthew's first readers two thousand years ago are just as alive and relevant to us today as they were to the frightened followers of Jesus during the first centuries of the church. Despite societal pressure and persecution, they went on to change the world. They stood up against the greatest earthly power the world had ever known—the Roman empire. Their eventual victory was motivated by one simple fact: They believed in and trusted the promises made to them, promises that were fulfilled in Jesus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결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분리, 배제, 심지어 추방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천 년 전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교회 초창기 예수님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압력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알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지상 권력인 로마 제국에 맞섰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YOUR STORY 10-15 MINUTES

Group Questions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God kept His promises to Abraham and David to one day send a Savior. What does God's faithfulness in keeping these promises say about God's character? Seeing God's faithfulness in the lives of these Old Testament characters reassures us that when God makes a promise, He always follows through. And because He has always demonstrated faithfulness in carrying out His promises, we can have greater confidence for today in knowing that He continues to uphold the promises He has made to us in Scripture.

The reality of Jesus' coming changed the lives of Matthew's readers. How does that reality change the course of your own life? Answers will vary.

Like the Jews during their time in captivity, have you ever felt like you were in a spiritual exile? How does the gospel of Christ deliver you from that? A "spiritual exile" may be any time in the Christian life where one feels distant from God or "outside" His will. During moments like these, it is vital to turn one's attention to Christ and the gospel, where we learn not only that our feelings can often deceive us, but also the reality that God desires to be near us and has done so in the incarnation of Jesus.

How has this session challenged you in your own understanding of Jesus' birth? Answers will vary.

그룹 질문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당신의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는 의미를 갖고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젠가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까요? 구약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데 항상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현실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처럼, 당신도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당신을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나요? "영적 유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그분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종종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세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YOUR MISSION 10-15 MINUTES

Head

Contained in the first genealogical block are the names of four women. Surprisingly, Sarah (Abraham's wife), Rebekah (Isaac's wife), and Rachel (Jacob's wife) did not make the list! The first to make the list, Ruth, was a foreigner. Those that follow, Tamar and "Uriah's wife" (Bathseba), were both victims. Even Rahab, who might have been written off because she was a prostitute, gave shelter to the spies and saved their lives. What these women have in common is that they were non-Jewish women married to Jewish men. Their presence in the genealogy shines a spotlight on the promise that all nations would be blessed through Jesus.

What does the inclusion of these four women tell you about God's desire to bless the whole world? It shows us that God extends grace to all who repent of their sins and place their faith in Him.

In what ways does God bless the world through Christians—those who have trusted in Jesus and are now part of this family tree? He blesses the world in one sense by having living witnesses of His grace and mercy, who are called to share God's message of love to the nations.

머리말

첫 번째 계보에는 네 여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라(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이삭의 아내), 라헬(야곱의 아내)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목록에 포함된 룰트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밋세바)는 모두 희생자였습니다. 심지어 창녀였기 때문에 제외되었을지도 모르는 라합조차도 정탐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여자들의 공통점은 유대인 남성과 결혼한 비유대인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계보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조명합니다.

이 네 여자가 포함된 것은 온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 족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그들은 열망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Heart

All throughout the Bible, we see a loving Father who consistently keeps His promises to His children. In fact, God keeps His promises even when His people live in disobedience to Him or doubt that He will do what He says. God's constant faithfulness should encourage believers. His consistency in remaining faithful not only means that God will always keep His word, but also that He will always work for our good and joy even when we don't deserve it.

How should the reality of Jesus' arrival increase your confidence in God's faithfulness? Answers will vary.

What are some areas of life where you have experienced doubt that God would come through for you? How does the Bible's testimony of God's constant faithfulness challenge those doubts? Answers will vary.

마음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불순종하거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지 의심할 때에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믿는 자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항상 우리의 선과 기쁨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현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의심을 경험했던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는 그러한 의심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Hands

Jesus' arrival wasn't just for the people in the first century, and Jesus' arrival wasn't just for us—His arrival is for all people of all times. Instead of keeping the gospel of Jesus to ourselves, God calls us to proclaim Jesus as the central figure of history and the only One in whom salvation is found. We want others to know Him, and the fact that so many have never heard of Him should motivate us to go and tell others the good news of His arrival.

Who in your life was faithful to share the gospel with you for the first time? Answers will vary.

What is God's will for your life when it comes to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What are some ways you are currently being faithful to that call? Answers will vary.

손
예수님의 오심은 1세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 인물이자 구원을 얻는 유일한 분으로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충실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그 부르심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TIMELINE

From Abraham to Jesus

The arrival of the Promised One.

Mary Praises God

God works in the heart and life of Mary.

God With Us

The good news of Jesus' Incarnation.

Jesus' Early Years

Jesus grows in favor with God and men.

Jesus' Baptism

The meaning of baptism in the life of the believer.

Jesus Overcomes Temptation

Where Adam and Eve and the early Israelites failed, Christ succeeded.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약속된 분의 도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기쁜 소식

예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셨다.

예수님의 세례
믿는 자의 삶에서 세례의 의미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시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셨다.

LEADER PACK

For this session, refer students to pack items 1-3. These items provide an overview of the Essential Doctrines, Key Figures, and Timeline images they will see throughout the spring quarter. In addition, be sure to direct their attention to pack item #4, which provides an informational chart of promises made in the Old Testament and their corresponding fulfillment in the New Testament.

ADDITIONAL INFO

Additional Resources

Check out the following additional resources:

Leader Training Videos

One Conversations

Midweek Studies (to access your Midweek Study, go to lifeway.com/TGPRescueSpr17)

Circular Timeline Poster

App (for both leader and student)

Additional suggestions for specific groups are available at GospelProject.com/AdditionalResources
And for free online training on how to lead a group visit MinistryGrid.com/web/TheGospelProject